

광주 4개 대기업 노조 ‘지역발전·상생’ 손 잡았다

KT·광주은행·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기업별 현안도 연대...한 목소리 내기로

광주지역 4개 대기업 노조가 지역 발전 및 사회공헌 사업 등 상생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2개)과 한국노총(2개)에 각각 소속된 이들 기업노조가 ‘편 가르기’를 떠나 기업별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노동계의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KT(정광우 위원장)와 광주은행(강대욱 위원장), 기아자동차(이기곤 지회장), 금호타이어(허용대 위원장) 등 4개 대기업 노조대표는 27일 광주시청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노조는 그동안 개별사업장 차원의 사회적 봉사활동 및 공헌을 한 차원 뛰어넘어 대표자 모임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과 노동’이라는 건전한 의제로 구체적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이기곤 기아차 광주지회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념적 틀을 뛰어 넘어 연대의 힘으로, 개별적·고립적인 활동을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위한 진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욱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현재 사업장별 현안 문제이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주는 행 매각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기



광주지역 4개 대기업 노조 대표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왼쪽부터 이기곤 기아차 광주지회장, 강대욱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허용대 금호타이어 위원장, 강민성 기아차 광주지회 정책고용3부장.

아차 100만대 공장 건설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제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현제 사업장별 현안 문제이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주는 행 매각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기

나”는 시작에는 경제침을 나타냈다. 허용대 금호타이어 위원장은 “지금껏 노조가 지역 경제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차원에 그치는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키워 지역민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초청, 4개 노조 상무집행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차례 걸쳐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노조 대표들은 “이번 모임은 그동안 각 회사 차원의 이해에 머물러 사측과 대립하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지역현안과 경제에 대한 고민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이라고 본다”며 “4개 노조가 이념을 떠나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위해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와 광주은행 노조는 한국노총에,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는 민주노총에 각각 소속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건설부문 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대명토공·화웅건설 등 우수 협력사 시상도

효성그룹 건설 부문 계열사들은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50여개 우수 협력사를 초청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반기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효성 및 협력사 관계자들은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기술협력, 교육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중간 소을 억제와 친환경 자재 개발, 다양한 아파트 공간 활용 등에 관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했다. 최우수 협력사로 대명토공㈜이, 우수 협력사로 ㈜화웅건설·진명건설비㈜·삼우설비㈜가 선정됐다. 이들 회사에는 포상으로 수의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효성그룹은 건설 부문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위해 지난해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매년 두 차례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효성그룹 건설 부문 계열사는 ㈜효성 건설PU(Performance Unit),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진흥기업㈜ 3개사로 건설PG(Performance Group)를 구성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졸업·입학 선물 노트북·가방 인기

시계·책상도 많이 팔려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오픈마켓에서는 노트북·태블릿 PC와 가방 선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켓은 1~2월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찾는 소비자 비중이 전년보다 24%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7일 밝혔다. 이어 보석과 시계(13%), 디지털 카메라(13%), 가구(12%), 도서·음반(6%) 등의 순이었다. HD 영상 촬영·디지털 카메라·음성 녹음 기능을 갖춘 블랙드라이브 선물도 많이 찾았다.

육선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책가방(240%)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책상(90%), 노트북·PC(50%), 보석·시계(20%), 의류

(10%)가 졸업·입학 선물로 많이 판매됐다. 인터파크에서도 가방(87%)을 비롯해 태블릿 PC와 노트북(43%)의 인기가 높았다. 이어 만년필(39%), 운동화(35%), 책·결상(27%)도 졸업·입학 시즌의 선호 선물로 집계됐다.

11만가에서는 같은 기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인쇄할 수 있는 기기인 포켓포토(80%)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판매도 올해 들어 전년 11~12월보다 20%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졸업생과 입학생을 위한 선물로 가방과 디지털 기기가 인기가 많았으며 특히 노트북의 경우 태블릿 PC처럼 휴대성이 강조된 초경량 제품과 일체형 PC가 선물로 많이 팔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적정 수준 관리”

현오석 부총리 “주택담보 대출 소득공제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가계의 소득개선 노력도 병행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한다”며 “단순히 임금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 2014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27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조직위원회(위원장 유인학)가 주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20%로 축소

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중형 공동주택 용지는 용지공급 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 확보 비율을 주변의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설될 전체 공동주택 가수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임

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분양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전, 청년인턴 800명 선발...광주·전남 81명

한국전력은 27일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채용우대형 청년인턴 8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는 81명이 채용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전국 각지에 배치돼 5개월간 고객서비스 및 설비운영 부서에서 다양한 현장업무를 경험하게 되며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신입사원 공채 지원 시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5~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3월7일까지이며 한전

채용 홈페이지(recruit.kepco.co.kr)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시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채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기술자격을 소지자는 우대한다.

한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와 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 최대 규모인 정규직 824명, 청년인턴 1226명 등 총 2050명을 채용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78.43 (+7.66)	▼ 코스닥지수 528.37 (-0.86)	▼ 금리(국고채 3년) 2.85% (-0.01)	▲ 원·달러 환율 1068.80원 (+3.40)
----------------------------	---------------------------	-------------------------------	-------------------------------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탐험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352-7788, 676-7719,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격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